

『환경보존은 혁명이다』

전쟁, 화학물질, 다이옥신, 인체실험 - 그 환경테러의 주범들



이 재 근

〈국립공원협회이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

지금 1999년 - 20세기의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을 내려오고 있다. 석양의 노을이 사람들의 가슴에 드리운다. 그 노을의 빛깔은 피 빛이다. 20세기는 끔찍한 환경파괴의 경쟁으로 시작됐던 것이다.

1·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의 검은 연기, 살이 타는 냄새, 한반도의 비극, 베트남전선의 고엽제, 킬링필드의 엉킨 피, 남아프리카의 종족전쟁, 걸프전의 포격과 화염, 코소보의 핵폭탄... 아벨의 피는 대지 밑으로 숨어들어 신을 하고 인류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와 벌에 떨며

그 신음에 귀를 막으려 발버둥친다.

이 전쟁들과 환경파괴 행위에 더하여 지난 세기는 우리 인간들의 복잡한 사치와 욕망을 위해 갖가지 실험들이 자행됐고 인간들은 드디어 제 몸마저 제공했다. 생명복제, 인간복제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의 개가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일체의 생명들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런데도 이 엄청난 모독 행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드디어 오늘날 다이옥신이라는 공포의 괴물이 현실로 다가왔다. 벨기에 산 육류로 촉발된 다이옥신 오염문제가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다이옥신은 250g이면 한 지역을 오염시키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기형아 출산과 조산, 사망을 부를 수 있는 독약이다. 1976년 북이탈리아 밀라노 근교마을을 세베고에 있는 이크메사 화학공장의 폭발사고로 다이옥신이 퍼졌다. 이때 세

베소의 가축들이 무더기로 죽어갔고 기형아가 증가하는등 공포의 피해가 이어졌다. 이 사고로 세계는 다이옥신의 무서움을 알게됐다. 바로 그 다이옥신이 의도적으로 베트남전쟁에 뿌려졌다.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이름의 고엽제였다.

다이옥신은 제조제 또는 항균제 제조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청산가리 1천배의 맹독성을 지니고 있다. 쓰레기나 쓰레기를 태울 때의 불완전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며 흡연과 자동차 배기가스도 원인이 된다. 대기중에 떠 돌아 다니거나 빗물에 섞여 물과 토양으로 옮겨진다.

이 무서운 다이옥신을 놓고 드디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산하 국제 암연구소를 통해 국제적인 발암물질로 인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강대희 박사는 『다이옥신에 대한 확실한 대처 방법은 없다. 선진국들도 정확히 발암경로를 규명하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인체내의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나 기준치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이옥신은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다. 인체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것이 호르몬인데 이 다이옥신은 인체에 들어가 신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화학물질이다. 그 가장 큰 위협은 인간 생식기능의 교란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이 환경호르몬으로 남성의 정자수가 감소한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사회적 이슈가 됐다. 이 다이옥신이 작금에 또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현황은 또 어떠한가. 냉전이 끝난 지금도 세계는 전쟁중이다. 1993년 한해 동안만 해도 세계곳곳의 전쟁터에서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다. 세상물정 모르는 아이들조차 폭격의 화염 속에 고아가 됐고 난민으로 떠돌고 있다. 더욱이 핵무기와 화학무기가 불을 뿜는 전쟁은 사람과 자연의 생명력을 그야말로 재생 불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국지전은 꾸준히 오랫동안 그 지역을 폐허 상태로 방치해 생태계가 회복될 기회마저 주지 않는다.

지금 세계에는 5만여기의 핵탄두, 7만톤이상의 독가스, 수백만 톤의 재래식 탄약과 폭약, 4만 5000대의 전투기 17만 2000대의 탱크, 15만 5000문의 대포 그리고 200척의 전함과 잠수함이 배치 됐거나 비치돼 있다.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군수산업을 민간산업

으로 전환해 평화와 비군사화에 투자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군사강대국들은 보다 현대화된 무기의 생산과 수출증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 무기들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우선 이들 무기의 61%가 제3세계 분쟁지역으로 흘러든다. 대표적인 분쟁지역인 아프리카에는 총 7억 300만명의 인구가 1000여 종족과 53개의 독립국가로 묶여 살고 있다. 언어만 해도 모두 2000종이나 된다.

무기는 또 어디로 흘러드는가. 쓰고 난 무기, 고장난 무기, 맹독과 화염을 뿜어대는 화학무기는 처치 곤란한 쓰레기로 쌓여 지구를 뒤덮을 것이다. 특히 현대의 전쟁은 화학전, 핵전쟁의 양상을 띠면서 사람과 자연을 그야말로 재생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최초의 1960년대 말까지 전쟁에서 노획했거나 오래된 화학무기들이 노

천소각, 지하매장, 해양 투기등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모한 방식으로 처리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수십만 톤의 화학약품을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그리고 플로리다 앞 바다에 버렸으며, 발트해, 북해, 지중해, 바렌츠 해와 우리나라 동해등에 쏟아 부었다. 이것들이 어장에 미칠 영향이나 장기적인 위험 따위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화학물질이 강으로 흘러들어 물속 생물의 폐죽음을 부른 제임스강 오염사건(1977년)이나 수천명의 사람들이 미친 고양이처럼 버둥거리다 죽어간 미나마타사건(1953년)등을 떠올리면 훗날 있을 어떤 불길한 재앙을 예감하게 된다.

미국 '군사유독물질 네트워크' 소속의 한 관계자는 현대의 핵무기와 화학무기의 난해성을 『생산하기도 위험하고 사용하기도 위험하며 그리고 폐기하기도 위험하다』고 묘사했다.

베트남 해방전선군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미군이 사용한 에이젠트 - 「느린 탄환」이란 별칭을 갖고 있는 고엽제는 1962년 부터 1972년까지 10년간 뿌려졌다. 물론 사람만이 이 치명적인 무기에 희생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 7200만톤이나 되는 고엽제와 5300만톤의 폭탄을 베트남에 쏟아 부었다. 베트남 국민 한 사람당 260kg의 폭탄을 맞은 셈이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중 미국이 사용한 폭탄의 2배 이상이 된다. 이 집중폭격으로 베트남에는 9000만개나 되는 폭탄 구덩이가 생겼다.

230kg짜리 폭탄 한 개가 터지면 직경 10m 길이 5m 가량의 구덩이가 생기고 그곳의 표토층은 날아가 버린다고 한다.

지난 1985년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 국토의 39%인 1만 2000ha가 황무지로 변했고 밀림을 집중 공격한 고엽제와 소이탄 등으로 1만 4500ha에 이르던 숲이 전쟁 후에는 7300ha에 불과하게 됐다고 한다. 적어도 5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자연환경이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다.

고대와 근 현대사를 일관하여 모든 전쟁들은 한마디로 지구를 인질로 잡고 치른 전쟁들이었다. 고대 아테네와 스파르타사이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한지 두 해째인 기원전 430년, 아테에는 전대미문의 역병이 돌아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 결국 지도자인 펠리클레스도 이 질병으로 죽고 전쟁에서 패배한다. 이 일은 '오이디푸스왕'의 배경이기도 하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 역병을 펠로폰네소스 사람들이 저수지에 독을 풀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고대 전쟁에서는 저수지나 우물에 독을 타거나 동물의 시체를 버려 전염병이 돌게 하는 게 중요한 전략과 전술, 술한 전투들이 모두 사람과 자연과 환경을 불모로 잡고 무차별의 파괴를 자행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보면 된다. 고금의 모든 전쟁의 역사는 실로 사람과 환경, 환경과 자연파괴의 역사였다.

20세기에서 인류는 이미 이전의 모든 세기를 합한 것 보다 더 많은 고통과 죽음, 전쟁과 변화 그리고 자연과 환경의 파괴를 목격해 왔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이 스스로 불러 온 것들이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환경 전체가 이제 몰락으로 접어들려고 하는 이 시점 - 새 밀레니엄을 앞두고 우리는 깨어나야 한다. 자연과 환경은 우리것이 아니라

선조들에게 물려받았고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건잡을 수 없이 훼손, 파괴되어 가는 자연과 환경을 보존, 보전하는데 더 이상 주춤 거려서는 안된다.

「보존은 혁명이다」

(Conservation is Revolution)라는 모토를 새삼 상기 할 일이다. 이는 개발 물결과 관리 소홀로 사라져 가는 역사, 사람, 자연과 환경유산 보존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21세기를 환경의 시대라 한다. 아니 환경의 보전, 자연보존운동은 이미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이다.

거듭 다음의 경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문제는 서서히 다가오기 때문에 문제인식이 쉽지 않다. 하지만 그 피해는 어떤 재앙 어떤 대형사고 보다도 크기 때문에 단 한순간 단 한치도 방심하거나 감시를 게을리 할 수 없다.』 ▲▲